

자전적 에세이 형식으로 쓴 독특한 사전

유미리의 《흠치다 도망치다 타다》

“사전에는 인생이 없다.”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씨가 사전에 나온 ‘사랑’이란 낱말의 뜻풀이를 인용한 끝에 한 말이다. 그 사전의 으뜸풀이에 따르면, 사랑이란 “애뜻이 여기어 아끼고 위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 사전에는 사랑에 관한 버금풀이가 네가지나 더 나와 있으나, 마음에 든 것은 없었다고 지은이는 실토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무게가 실린 사전이라면 어떻게 뜻을 풀었을까. 만약 그런 사전이 있다면, 사랑을 일러 “피를 흘릴 만큼 타자에 관여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으리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지은이가 바라는 사전은 없다. 그래서 지은이는 오랜 ‘언어와의 밀월’을 종자돈 삼아 직접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작가라면 누구나 꿈꿨을 법한 ‘사적인 감각의 언어’로만 이뤄진 사전을 만든 것인데, 최근 우리말로 옮겨진 《흠치다 도망치다 타다》(김난주 옮김, 민음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은이의 발랄한 상상력 엿볼 수 있어

한 낱말에 대한 뜻풀이가 ‘사적인 감각’에 기초해 이뤄졌다면, 그래서 인생이 담긴 사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책 전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은이의 가족사적 불행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갈라서면서 가정의 풍비박산 났고, 형제들마저 흩어져 살아야 했던 불우한 시절의 경험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은이가 이같은 과거를 극히 건조하게 회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지은이에게 가족사적 불행은 빠져 나오지 못할 늪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세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일 뿐이다.

‘보조열쇠’와 ‘점쟁이’는 지은이의 기질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낱말이다. “어떤 유리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착각. 아내가 남편의 주머니 안에서 발견했을 때는 혼란”이라고 보조 열쇠의 뜻을 풀이한 지은이는, 이 낱말과 관련된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유랑민’이라고 선언한다. 인연이 돼 며칠 밤을 함께 지낸 남자가 보조 열쇠를 주면서 동거할 뜻을 비치면 지은이는 어김없이 그 남자를 떠났다는 것이다. 한 남자에게 ‘정주’하지 않듯, 지은이는 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점쟁이’에는 지은이의 앞날이 예언적으로 그려져 있다. 여동생의 소개로 용한 점쟁이를 만난 지은이는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고독한 상이야. 글쓰는 일이 적합하겠어. 단 끈기가 없는 점,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지금 남자관계로 애먹고 있지. 하지만 서른이 넘으면 그런 일에는 일체 흥미를 잃고 오로지 일에만 정진하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후세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어.”

점쟁이는 지은이에게 만년은 고독하고 비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방’과 ‘비밀’은 지은이의 콤플렉스를 알 수 있는 항목이다. 초등학교 시절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친구들과 사이에 유방이 작다는 사실을 들었고, 6학년 때는 수학시간에 오줌을 싼 일이 있었다. 두사건때문에 지은이는 동창들을 피해 사립중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담’은 자신을 체찍질하며 늘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지은이의 강단 있는 정신자세를 느낄 수 있는 항목이다. 지은이는 어릴 적 담장을 우아하게 걷는 고양이를 보고나서 담장 위를 걷는 게 취미가 됐다. 어릿광대처럼 두팔을 벌리고, 흔들



김난주 옮김
민음사/B5/182면/7000원

리는 몸의 균형을 잡으면 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바닥 없는 늪, 왼쪽으로 떨어지면 식인악어와 피라니아가 우글거리는 강이라고 속을 중얼거리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걸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은 지은이의 발랄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아포리즘이 많다는 것이다. “편하려고 탈 것을 발명했는데, 정말 타고 싶은 것은 탈 수가 없다. 꽃가마, 상승기류”는 ‘타다’라는 낱말의 풀이다. ‘폐막’에 대해서는 “연극이나 사랑이나 인생이나, 폐막이 가장 어렵다. 너무 극적이어서도 안되고 너무 썰렁해도 안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인생사와 작품세계 파악하는 데 도움돼

47개의 낱말에 대한 지은이의 독특한 풀이가 담긴 이 책의 원제는 《사어사전(私語辭典)》. 번역본의 감각적인 제목보다 원제가 책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번역본은 허라가나 순으로 편집된 원서대로 낱말을 배열했는데, 마지막 항목은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게 ‘헤어짐’이다. 이 항목을 설명하면서 지은이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온 대사를 인용한다. 공주가 기자와 헤어질 때, “뒤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라고 했다. 이에 기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말로 충분해.”

이 책을 읽고난 소감은, 지은이가 인용한 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유미리를 아는 데 이 책으로 충분해”라고 말이다.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독자라도 이 책을 읽으면 작가 유미리의 곡절 많은 인생사와 그의 작품세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권우 기자